

# 4년 연속...가을 문턱 못 넘은 호랑이



4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경기에서 패하며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더그아웃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KIA, 두산에 0-9패... 남은 2경기 상관없이 5강 좌절

잔치는 끝났다. 5위에 도전했던 KIA 타이거즈가 4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0-9패를 기록하면서 남은 두 경기 승패와 상관없이 와일드 카드 확보에 실패했다. 뜨겁게 전개됐던 2015시즌의 프로야구 순위 싸움도 이날 경기 결과와 함께 사실상 종료됐다. 삼성 라이온즈가 전날 넥센 히어로즈를 1-0으로 꺾으면서 사상 첫 정규리그 5연패를 기록했고, 두산은 값진 1승을 추가하면서 넥센을 4위로 내리고 3위로 정규리그 일정을 마감했다. 기승 졸이며 KIA의 경기를 지켜왔던 SK는 향방을 알 수 없었던 5강 싸움의 승자가 됐다. 이를 연속 선발이 조기 강판당하면서 KIA의 5강 불씨가 꺼졌다. 시즌 내내 발목을 잡았던 화력도 아쉬웠다. 스티븐슨이 나섰던 3일 경기가 특히 아쉬

프로야구 중간순위 (10월 4일 현재)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삼성	87	56	0	0.608	0
2 NC	84	57	2	0.596	2
3 두산	79	65	0	0.549	8.5
4 넥센	78	65	1	0.545	9
5 SK	69	73	2	0.486	17.5
6 한화	68	76	0	0.472	19.5
7 KIA	67	75	0	0.472	19.5
8 롯데	66	77	1	0.462	21
9 LG	63	78	2	0.447	23
10 KT	52	91	0	0.364	35

왔다. 지난 3일 두산 유희관을 상대로 1회부터 이범호의 만루포로 4점을 뽑아내면서 승리를 예고했던 KIA였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스티븐슨이 1.2이닝 5피안타(1피홈런) 3사사구 3실점으로 2회 2사 만루에서 강판되면서 흐름이 묘하게 흘러갔다. 4일 만에 임준혁이 출격했지만 앞선 3일 2-1의 승리를 책임졌던 마무리 윤석민이 계속된 등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서 역전을 허용했고, 김원섭의 동점 안타로 다시 시작된 10회에는 2이닝을 잘 막아왔던 한승혁이 정수빈에게 역전포를 내줬다. 2루수 김주형의 실책까지 겹치면서 7-9로 경기가 끝났고 이 패배로 두산은 3위 불씨를 살렸다. 5위 가능성과 3위 자리를 놓고 벌였던 4일 경기에는 흥건희가 선발로 등판했다. 상무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92친구' 좌완 이현호와의 마운드 맞대결이 전개됐지만 불넷에 흥건희가 스스로 무너졌다. 2회 2

사에서 4개의 불넷을 날발하면서 2점을 내준 흥건희가 3회 2사에서 또 연속 불넷을 기록하면서 강판됐다. 반면 이현호는 5.2이닝 4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 투수가 됐다. 막바지까지 치열했던 5위 싸움 속 과부화에 걸린 불넷, 선발이 일찍 무너진 뒤 유창식-박준규-박준표가 나섰지만 불넷은

두산의 방망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0-4로 뒤진 7회 김현수에게 우측 담장 넘어가는 스리런을 내주면서 5강 싸움이 끝났다. 전날 9개의 장루를 날렸던 타선은 이날 6안타 1볼넷으로도 1점을 만들지 못하면서 영봉패를 당했다. 뜨거웠던 지난 싸움을 생각하면 진한 아쉬움이 남은 패배였다. 허무하게 5강 싸움이 끝났지만 '호랑이 군단'에게는 '6위'라는 숙제가 남았다. KIA는 이날 패배로 6위 한화에게 이어 승자 없는 7위가 됐다. 한화가 144경기를 완주한 가운데 KIA에게는 5일 삼성, 6위 LG와의 홈경기가 남았다. 6위를 위해 최소 1승이 필요하다. 지난 2년간의 추락 속 맞은 리빙딩의 시즌, 최하위 후보로 꼽혔던 KIA는 기대 이상의 행보를 하며 10월까지 긴박하고 짜릿한 승부를 즐겼다. 앞선 과정에 비해 5강 싸움 최종 결과가 아쉽기는 하지만 가능성을 보여준 142경기였다. 남은 두 경기, 최선을 다한 승부로 박수를 받으며 2015시즌을 마무리해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범호 '만루홈런 사나이'

### 3일 두산전서 13번째 만루포...KBO 통산 250호

KIA 타이거즈의 이범호가 프로야구 역대 최고의 '만루의 사나이'가 됐다. KIA 이범호는 지난 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1회말 노아웃 만루 상황에서 유희관의 시속 121km짜리 체인지업을 받아 우측 담장을 넘겼다. 이범호 시즌 28호이자, 통산 250번째 홈런 그리고 13번째 그랜드슬램이 작성되는 순간이었다. 이 홈런으로 이범호는 대선배이자 스승인 김기태 감독(통산 249 홈런)을 넘어 프로야구 통산 13번째 250홈런 주인공이 됐다. 또 심정수(12개)를 따돌리고 만루홈런 역대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현역 선수 만루홈런 2위인 삼성 이승엽과의 격차는 3개로 벌어졌다. 대구고를 졸업하고 2000년 한화에 입단한 이범호는 2004년 8월 14일 문학 SK



전에서 자신의 첫 만루포를 시작으로 2006년 1개, 2007년 3개, 2009년 2개를 터뜨렸다. 2011년 KIA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뒤에는 2014시즌 3개, 올 시즌에도 3개의 그랜드슬램을 쏘아올리며 '만루의 사나이'로 우뚝 섰다. 이범호는 "의미 있는 기록을 한꺼번에 달성하게 돼 기쁘다"면서 "동료 선수들은 물론 응원해 준 팬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NYT에 실린 강정호 모교 광주일고

### 국내외 활약 선수 등 소개

비록 불의의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접었지만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데뷔 첫해 강렬한 인상을 남기자 그의 모교를 조명하는 기사까지 미국 현지 언론에 실렸다.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일(현지시간) 무등산의 정기를 받은 광주제일고를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서재용, 김병현, 최희섭 등 광주제일고 출신 역대 메이저리거들을 언급하면서 "10여 년 전에는 이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적인 길을 찾아가고 있었고 올해는 강정호가 네 번째 광주일고 출신 메이저리거로서 눈부신 루키 시즌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정호의 시즌은 지난달 심각한 무릎 부상으로 끝이 났지만 미국에서 그가 거둔 성공이 그의 모교와 고향에 가져다 준 자부심을 크게 퇴색하지



<NYT 홈페이지 캡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또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뉴욕 양키스의 로버트 로버트 레프스나이어(한국명 김정태)를 포함해 현재까지 16명의 한국 출신 메이저리거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 중 9명은 100경기도 채 뛰지 못했지만 야구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이며 광주제일고

역사와 함께한 굵직한 선수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선동열과 이종범 등 한국 프로야구가 자랑할 만한 전설적 선수들도 광주제일고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 기사를 쓴 앤드루 케는 지난 8월 한국을 찾아 KBO 리그 경기장을 방문하고 배트 던지기 세리머니 등을 비롯한 한국프로야구 문화 등도 취재해 기사화한 바 있다. /연합뉴스

## 아로마라이프배 제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 광일리그 8강 진출팀 확정...패밀리 야구단 '4전5기'

### 금호허리케인·카뎃진남V-COOL·NH자이언츠야구단 승리

아로마라이프배 제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광일리그 8강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4주차 경기가 지난 3일 무등중학교 야구장에서 열렸다. 광일리그 16강전으로 전개된 이번 대결에서 패밀리 야구단, 금호허리케인, 카뎃진남V-COOL, NH자이언츠야구단이 광일리그의 남은 8강 4자리를 차지했다. 패밀리 야구단이 무등기 5번째 도전 만에 대회 첫 승을 수확했다. 패밀리야구단은 화이트위리어스와의 경기에서 6회를 제외한 때 이닝 점수를 내며 리드를 이어갔다. 7회에는 6점을 만들어내면서 대회 첫 승을 13-3, 대승으로 장식했다. 금호허리케인은 정진산업스카이야구단에 6-5, 1점차 승리를 거뒀다. 금호허리케인은 4-1로 앞선 3회 4실점을 하면서 역전

을 허용했지만 5-6회 1점씩을 보태며 승리를 굳혔다. 팽팽한 접전 속 경기는 5회 시간 제한으로 마무리됐다. 카뎃진남V-COOL은 16-0, 4회 콜드승으로 야심만만을 제압했다. 1회부터 4점을 뽑아낸 카뎃진남이 2회 대거 10점을 만들어내면서 일찍 승기를 잡았다. 카뎃진남의 문영현과 조명운은 각각 만루포와 스리런을 날리면서 팀 승리를 자축했다. 광일리그의 8강 마지막 티켓은 NH자이언츠야구단에 돌아갔다. 터틀스를 상대한 NH자이언츠야구단은 0-0으로 맞선 2회 4점을 만든 뒤 3회에도 5점을 보태는 등 화끈한 공격력을 과시하면서 11-1 승리를 거뒀다. 한편 이번 대회는 아로마라이프가 함께하며 광주광역시야구협회가 주관,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전라남도생활체육회, KIA 타이거즈가 후원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경기	패밀리야구단	1221106	13
	화이트위리어스	1002000	3
▲승리투수:	김형선		
◇2경기(5회 시간 제한)	금호허리케인	13011	6
	정진산업스카이	01400	5
▲승리투수:	고남석		
◇3경기(4회 콜드)	야심만만	0000	0
	카뎃진남	4102X	16
▲승리투수:	정기준 ▲홈런: 문영현(2회 4점), 조명운(2회 3점·이상 카뎃진남)		
◇4경기(4회 콜드)	NH자이언츠야구단	0452	11
	터틀스	0001	1
▲승리투수:	정길호		